

2주
고교생
스페셜

2016년 활동의 성과

› www.projects-abroad.kr/projects/high-school-specials

Tel: (02)337-5725 / info@projects-abroad.kr

> In this report

Introduction	3
Our Social Impact	4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의료 및 헬스케어 봉사활동	5
건축 봉사활동	5
법률 및 인권 봉사활동	6
Our Environmental Impact	6
Our Economic Impact	7
Looking Back	7

Introduction

2016년 6월 ~ 8월 사이에 진행된 고교생 2주 프로젝트에는 48 개국에서 약 1,6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자 참가한 이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프로젝트(환경보호, 의료, 건축, 사회복지, 법률인권, 스포츠 등) 중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한 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문화를 교류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을 위한 배려, 봉사심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교류하고 직접 변화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2주의 활동 중에는 그 지역의 유명한 유적지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페루를 선택한 학생들은 모두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방문하고, 캄보디아를 선택한 학생들은 앙코르왓트를 방문할 기회를 갖습니다.

2~4주간 참가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2016년 어떠한 활동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제니 퓨오 (JENNY PUYO)
고교생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
프로젝터브로드 영국 본사



Our Social Impact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2016년, 봉사활동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참가한 고등학생은 670명으로 15개국에서 2,900여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며 케어와 교육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 참가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50여 개의 학교 교실을 짓고 보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학교에 직접 벽화를 그려 꾸미기도 하고 교실을 꾸미는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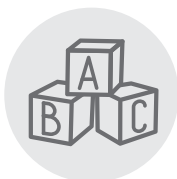


건강한 생활환경과 습관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

- 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은 9개의 정원을 꾸며 야채를 직접 가꾸어 식재료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 캠페인을 진행하여 450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0평, 20평 남짓한 곳에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고 먼지가 많아서 코가 간지러웠으며,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크고 있다니 좀 안타까웠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두 순수하고 예쁜 눈에 내 마음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2주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페인트칠과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지만 막상 완성하고 나니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채성진, 캄보디아 고교생 2주 사회복지 프로젝트 참가자



문해율 향상을 위한 활동

- 토고와 가나에서 지역사회 문맹퇴치에 도움을 주고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도서관을 짓고 서가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생교육

- 케냐의 슬럼가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벽을 쌓았습니다
- 캄보디아의 케어 센터에서 수도를 만들어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작업하였으며 더불어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도움으로 기초 글자공부와 산수공부에 향상된 그 곳 아이들을 위해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 아신, 프로젝트어브로드 남아공사무소의 사회복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유아발달(ECD)과 자극

- 피지에서 활동한 참가자들은 유아발달 주간(ECD Week)을 맞아 유치원과 케어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인지스킬과 사회적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위한 활동들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350명의 홀리스들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4개 국가에서 추가로 500여 개 지역사회에서 이와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급 자족을 위한 케냐의 건축활동

케냐의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Care & Community) 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은 이 지역 마을주민들의 자급자족 생활을 위한 젓소와 사료 보관소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마을에는 노인 환자와 말기 환자를 돌보는 후루마 호스피스 (Huruma Hospice) 환자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새끼 사육장을 설치함으로써 호스피스는 젓소의 수를 3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되어 환자들의 식단 보충을 위한 우유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의 비료는 현재 호스피스 농장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활동해 준 프로젝트 어브로드 교교생 참가자들의 도움으로 얻게 된 성과입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 프로젝트



의료 및 헬스케어 프로젝트 (Medicine & Healthcare)

- 의료 및 헬스케어 프로젝트, 공중보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의료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 145회의 대외의료봉사를 통해 총 9개 국가 8,000여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시 처치사항과 기본 의료상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약과 상비키트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축 프로젝트

자메이카의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12명의 싱글맘들과 아이들을 위한 실내 화장실 짓기를 포함하여 싱글파더를 위한 집짓기, 대가족을 위한 집짓기와 확장공사,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부엌시설과 화장실을 짓는 활동들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률 및 인권 프로젝트

법률 및 인권 프로젝트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인터뷰와 설문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배웠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아르헨티나에서는 생계를 위한 공공서비스(물, 전기 등)에 대한 세금증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발표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과 캠페인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친구들은 홍콩, 스페인 등 다양성을 경험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중 교육을 법률,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는 검사팀 그리고 변호사팀으로 나누어져 한가지 사건에 대해 꾸준히 토론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매일 하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에서 참가해 만난 친구들이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 곳이라 어려운 결심이었지만, 혼자 참가한 것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양승찬, 남아공 법률 및 인권 2주 프로젝트 참가자

> Our Environmental Impact

여름 3개월간 환경보호 프로젝트에서 활동한 고교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코스타리카에서 3킬로미터의 트레일에 1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 케냐에서 10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 공원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동물악탈을 위해 설치된 덫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중남미의 멕시코와 벨리즈에서는 290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자연 속에서 걷어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보츠와나에서는 여름의 건기에 절실한 식수의 보존을 위한 댐을 쌓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페루에서는 희귀 조류종들 보호활동을 비롯하여 1000개의 바다 거북알 보호활동, 그리고 페루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마존 자연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2016 여름,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가한 고교생들의 활동으로, 15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290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Our Economic Impact

프로젝트어브로드의 고교생 프로젝트는 활동하면서 이론 직접적인 성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적인 도움과 발전을 위한 도움 역시 주고 있습니다.



2016년 6월-8월 3개월간의 활동으로, 고교생 스페셜 프로젝트를 통해.

- 90 여 명의 현지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 70 가구를 위해 추가 수입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익 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간동안 고용한 차량 숙소 레스토랑 통역 및 전문 가이드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Looking Back

“저희는 매일 오전에 준비한 활동들을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로 영어 알파벳 카드로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그 후에 매일 다른 물건들을 사용하여 미술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낸 아이들은 만 2세에서 5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도 얼마나 기억할까 걱정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반대로 이 아이들은 아주 충명하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르쳐준 알파벳과 간단한 단어를 며칠이 지나도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가르친 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옵니다.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 접시로 사자모양 가면을 만드는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아주 좋아하고 서로서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느리게 지나갈 것만 같던 2주가 이틀인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떠나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친구들, 아이들, 그리고 추억들을 꺼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스리랑카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많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친구들과 SNS를 통해 연락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는 제가 봉사했던 유치원에 선물을 보내고자 기부물품을 모으는 중입니다. 짧은 2주였지만, 배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프로젝트 어브로드 스태프들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남에게 베푸는 삶을 꿈 꾸게 되었습니다.”

— 김지우, 스리랑카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가자

지우 학생은 귀국 후, 주변 친구들에게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그 곳 아이들에게는 많이 부족했던 장난감과 학용품들을 기부받아 활동한 유치원에 직접 소포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여름,

프로젝트어브로드 고교생 스페셜 프로젝트:

사회복지 봉사활동
혜택 대상은 2,900 여명의 아이들

재건과 수리활동
혜택 대상은 50개 학교의 교실들

145회에 걸친 대외 의료봉사활동
혜택 대상은 8,000여명의 지역사회 주민들

1,5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짐

290킬로그램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희귀동물구조활동
혜택대상은 1,000 마리의 바다거북 알

현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혜택대상은 90명의 현지 직원을 임시 고용

프로젝트어브로드의 활동은 일반적인 국가간의 문화교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탐구하고 탐험하고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진정한 미래의
리더 세대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